

KT 노동조합

현 장 과 함 께 하 는 노 동 조 합 건 설

10 09th

발행인 : 김구현 편집인 : 허 진
 주소 : 463-71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전화 : 031-727-4820(교육선전실 4850)
 팩스 : 031-727-4815
 홈페이지 : www.kttu.or.kr
 디자인 : 디자인 여백(02-2279-9631)

2009년 10월 1일(목)

노동계 핫 이슈

헌법재판소, 야간집회금지 '위헌'

지난 9월 24일(목) 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해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야간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해 위헌을 인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반응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노동계 및 시민단체는 당사 경찰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은 법개정 전까지 현행법이 유효해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평화적 야간 집회는 법개정 이전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현재 결정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라며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시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재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차 노조, 민주노총 탈퇴

지난 9월 8일(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결정됐다. 쌍용차는 재직 조합원 3,508명 가운데 2,642명이 참가해 73.1%인 1,931명이 찬성, 민주노총 탈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상급단체 없이 기업노조로 전환되었으며,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독립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현대차노조, 실리파 당선

9월 24일(목) 급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노조) 새 집행부 선거에서 중도·실리 노선을 추구하는 이경훈 후보가 지부장에 당선되었다.

현대차노조는 결선투표에서 이 후보가 전체 투표자 4만288명 중 2만1,177표(52.56%)를 획득, 강성측 후보인 권오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노조는 1994년 당시 5대 이영복 노조위원장 이후 15년 만에 중도·실리노선 집행부가 탄생하게 됐다.

이경훈 지부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현장을 무시하는 방침을 바꾸고 이념과 명분에 집착해 조합원정서와 동떨어진 생색내기식 파업을 벌이는 것을 지양하겠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통합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는 9월 22일(화) 민주노총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통합 공무원노조는 집행부를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뒤 12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3개 노조를 합하면 조합원 수가 11만5,000명에 달해 급속노조와 공공운수연맹에 이은 3번째로 큰 산하연맹이 된다.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무원도 노조결성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정치투쟁을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인고객부문 지부순회 통해 노동조합 알려 9월 8일부터 나흘간 서울·부산 등 전국 돌며 공금증 해소



▲ 노동조합은 9월 7일(월) 오후 5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개인고객부문 지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KT노동조합과 10대 집행부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 노동조합은 9월 8일(화) 수도권에 있는 개인고객부문 조합원들을 만나 KT노동조합을 바로 알리고 복지 등 공공한 점을 풀어보는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 9월 9일(수) 아침에는 개인고객부문 경남부산마케팅팀과 경남부산네트워크운용단에서 출근선전전을 펼쳤다. 출근길 조합원들은 조합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노동조합의 현장순회를 반겼다.

노동조합은 9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4일간 KT노동조합을 바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개인고객부문 전국 지부를 순회했다. 이는 지난 8월 11일(화) 합병으로 새 식구가 된 개인고객부문 조합원들에게 KT노동조합을 소개하고, 10대 집행부 노동운동 방향과 활동내역을 알리고 자 기획했다.

노동조합은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첫날인 8일(화)은 수도권에 있는 개인고객부문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을 만났고, 9일(수)부터는 부산·광주·대구·대전·원주지역을 순회했다.

4일간 수도권·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순회 이번 개인고객부문 지부순회에 대해 김구현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이 유무선 3만 조합원의 국내 최대 통신 노동조합으로 거듭난 만큼, 그에 걸맞는 위상과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전 조합원이 고용안정의 깃발아래 뭉쳐,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지부순회의 일환으로 9월 9일(수) 아침 개인고객부문 경남부산마케팅팀과 경남부산네트워크운용단을 방문해 출근선전전을 펼쳤다. 개인고객부문 조합원들은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해 출근과 함께 체온측정을 받으면서도 조합간부들이 전하는

노동조합 리플렛과 노보를 꼼꼼히 챙기며 반겼다. 조합원들은 출근선전전을 하는 조합간부들에게 "KT복지혜택" 등 궁금한 점을 많이 물으면서, 앞으로 한 가족으로서 KT노동조합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KT 복지혜택은 소식지, 노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조합원 최우선시하는 노동조합 만들기”

한편, 노동조합은 9월 7일(월) 오후 5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개인고객부문 지부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구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11명의 개인고객부

문 지부장들에게 "노동조합 합병에 따른 걱정과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위로한 뒤, "임현재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큰 결단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문화와 체제차이를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조합원을 위한 현장조합간부로서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길 바란다"며 "10대 집행부 주역으로서 힘을 모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2009년도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10대 집행부 첫 회기, 예산집행 및 증빙 적절했다"

KT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회(대표위원 김재희 외 6인)는 2009년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5일간 '2009 회계연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18일 오전 10시 총평 및 회계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재희 회계 대표위원은 총평에서 "10대 집행부 첫 회기임에도 증빙자료들이 대체로 적절하게 처리가 됐고, 정리 또한 잘 되어 있었다"고 평가한 뒤 "다만 여러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앞으로 몇 가지 시정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회계감사위원회는 업무용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등 권고사항 총 5건을 전달하고, 조합비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구현 위원장은 "지난 1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한 뒤,



“권고하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투명하고 적절한 조합비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제7차 지방본부위원장단 회의 개최 개인고객부문 지부운영사항 등 논의

노동조합은 지난 9월 10일(목) ~ 11일(금) 부산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제7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고객부문 지부장 간담회, 중앙 회계감사, 이동정책실, 재해조합원 위로방문 등 9월 주요 행사일정을 공유한 뒤, 개인고객부문 지부운영에 관한 사항과 노사합동실태조사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개인고객부문 지부조직 지방본부 편제 현황〉

구조직 명칭	신조직 명칭	지부장 명	지방본부	구조직 명칭	신조직 명칭	지부장 명	지방본부
서울1지부	개인고객마케팅지부	강화수	본사	부산지부	경남부산지부	박대조	부산
서울2지부	무선데이터/연구소지부	박경식		대구지부	경북부산지부	정재욱	대구
서울3지부	무선네트워크지부	송민관		광주지부	호남부산지부	형상우	전남
수도마케팅지부	수도권무선마케팅지부	이희진	강북	대전지부	충청부산지부	김성기	충남
수도NW강북지부	강북무선네트워크지부	박철성		강원지부	강원부산지부	최희동	강원
수도NW강남지부	강남무선네트워크지부	허정식		총 11개 지부, 조합원 수 1,61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9월 21일부터 3일간 대전서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표위원 유재권 외 9인)는 지난 9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3일간 대전 인제개발원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을 소집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교육 및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전담반을 구성해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10월내로 꾸러지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는 전담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모라곶 피해 입은 중화통신노동조합 방문 폭우로 대만 통신기반시설 막대한 피해... 기부금 전달 등 위로

노동조합은 9월 2일(수)부터 3일(목)까지 1박2일간 태풍 '모라곶'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대만의 중화통신노동조합을 방문했다. 지난 8월, 8호 태풍 모라곶은 사흘 동안 대만에 2800mm의 폭우를 쏟아 부어 600백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엄청난 시설 피해를 불러왔다.

짧은 일정 동안 임현재 부위원장과 하진 교육선전실장 등은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 주전병 위원장을 만나, 피해현장을 답사하고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 주전병 위원장은 "수십 년간 공들인 통신기반시설이 무너져 조합원들의 상심이 크

다"고 우려한 뒤, "각국 통신 노동자들의 연대와 위로에 힘입어 하루빨리 재건에 나설 것"이라고 인사했다.



▲ 9월 2일 태풍 모라곶 피해 현장. 태풍에 지진까지 겹쳐 강과 도로, 집의 경계가 무너지고 다리, 나무들이 날려 있다. 조합원들은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 간부로부터 산 전체가 떠밀려 내려와 있는 현장에서 피해설명을 들었다.

중화통신노동조합은 대만 최대통신 노동조합으로 KT노동조합과는 2003년부터 동아시아포럼을 통해 연대하



▲ 특히 대만 남부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남부의 내 지역 중화통신노동조합의 기반시설이 밀집한 카오슝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다리가 끊어지고 도로가 유실된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고 있다. 제 7회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포럼은 10월 26일(월)~28일(수)까지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 KT노동조합은 모라곶으로 피해를 입은 중화통신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KT노동조합 임현재 부위원장,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 주전병 위원장, KT노동조합 하진 교육선전실장.

개인고객부문 지부순회 현장 "KT복지혜택 등 궁금한 점 많아"



△ 노동조합은 개인고객부문 지부순회에 앞서 9월 7일(월) 오후 5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개인고객부문 지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11명의 개인고객부문 지부장들에게 "노동조합 합병에 따른 걱정과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위로한 뒤, "임현재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큰 결단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문화와 체제차이를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설 것"을 약속했다.



△ 노동조합은 9월 8일(화)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KT노동조합을 바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개인고객부문 전국지부순회를 시작했다. 사진은 첫날 조합원들이 점심에 있는 개인고객부에서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홍보물을 점검하는 모습이다.



△ 노동조합은 8일(화) 점심, 청량리 등 수도권에 있는 개인고객부문 조합원 및 조합원들을 만나 KT노동조합을 바로 알리고 복지 등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 "KTU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노동조합은 9일(수) 아침 경남부산시케팅단과 경남부산네트워크운용단 출근선전전에 이어 오후에는 대구로 이동, 대구지역 개인고객부문 조합원들을 만났다.



△ 노동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경북부산지부 출근선전전 이후 사무실에서 지부장 및 부서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형진 정책기획실 기획관리국장은 한 가족이 된 KT노동조합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 노동조합은 9월 11일(목) 강원지방본부 강원부산지부를 방문, 최희동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조합원들을 만나 KT노동조합에 대해 안내하고 합병 이후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전북지방본부서 이동정책실 운영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남원지부 등 현장활동

노동조합은 9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전북 지방본부에서 이동정책실을 운영했다. 이번 이동정책실은 출근선전전, 현장체험, 각실순회 및 고충사항 청취, 정책실과 지부장, 중앙상무집행위원장 간담회 등으로 진행했다. 이동정책실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고충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며, 현장의 여론과 애로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동정책실은 월 1회 노동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이 일선 현장을 방문해 낮에는 조합원들과 가설, 정비, 영업, 망관리 등의 작업을 함께 하고, 저녁에는 조합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갖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10대 집

행부가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업무를 이해하고 고충을 체감함으로써 필요 시 사측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조합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했다.



△ 전북지방본부 남원지부에서 조합원들이 지장 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조합, 재해조합원 위로 방문 추석 앞두고 빠른 쾌유 기원



△ 지장이전적업 도중 전주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조합원과 위로방문한 조합원부 모습



KT노동조합은 9월 24일(목)부터 28일(월)까지 각종 재해(산재, 일반)로 고통중인 조합원을 위로 방문했다. 노동조합은 추석을 앞두고 시행한 이번 방문을 통해 위로금을 전달하고 재해 조합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방문 대상은 현재 입원중이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조합원이며 전국적으로 총 37명이다.

생해 무척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병원에 입원중인 또 다른 조합원도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 역시 4개월 전쯤 부러진 전주에 올랐다가 추락해 다리가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허벅지 대동맥이 끊겨 생사를 넘나들었으나 위기를 잘 넘겨 현재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부러진 전주 올랐다가 추락... 대형사고 위험

지난 24일 위로차 방문한 강남지방본부 소속 이모 조합원은 지난 8월 중순 지장이전 작업을 하던 중 전주에서 떨어져 뇌손상과 장과열을 당하는 중상을 입고 현재 입원중이다.

이 조합원은 사고 당시 뇌와 장기를 크게 다쳐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갔으나, 현재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호전됐다. 그러나 사고 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있다.

소속 지부장에 따르면 "전주가 부러진 것을 모르고 올라갔다가 이전 작업을 하려고 케이블을 떼어내자 전주가 쓰러졌다"며 "이 같은 사고가 종종 발

"전주사고, 대책마련 시급"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전주가 너무 잘 부러지기 때문이다. 현장 조합원들의 말에 따르면, 철근을 넣은 전주는 충격을 받을 경우 부러지는 대신 휘어지지만, 강심을 넣은 전주로 바꾼 후부터는 전주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풀숲에 있는 전주의 경우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전주가 부러졌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특히 더 위험하다.

이에 대해 김용규 산업안전국장장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주를 바꾼 후부터 이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사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The 7th East Asia Telecom Union Forum

제7회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 포럼

KT노동조합은 2009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방안'을 주제로 '제7회 동아시아 텔레콤 노동조합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동아시아포럼은 2003년부터 KT노동조합과 일본 NTT노동조합,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동아시아 통신시장을 선도하고 각국의 통신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대하는 협의체입니다. 동아시아 통신강국의 통신정책을 공유하고 통신노동조합의 청사진을 그리는 '제7회 동아시아 텔레콤 노동조합 포럼'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정 2009년 10월 26일(월) ~ 28일(수) **장소** 경주 교육문화회관

주제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방안 **주최** KT노동조합

참가 KT노동조합 일본 NTT노동조합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

